

농업기술교육 서비스 채팅 로봇 시범 운영

농진청, 챗봇 '새싹'
귀농인·청년농업인 대상
'e-러닝' 콘텐츠 제공
로그인 없이 사용 가능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일반 국민의 농업전문기술교육 서비스 접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원 상담 서비스 채팅 로봇 '새싹'을 2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챗봇(대화로봇) '새싹'은 농업전문기술교육 서비스 주 이용자인 귀농·귀촌인, 청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평일 근무시간 이외에도 24시간 인공지능 로봇이 자동으로 답변해 주는 교육 민원 상담시스템이다.

'새싹'라는 이름은 챗봇명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것으로, 농업전문기술교육을 학습하고자 하는 '새싹'들에게 다양한 'e-러닝'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챗봇 '새싹'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http://hrd.rda.go.kr)를 통해 학습자, e-HRD 담당자 등 사용 대상에 따라 '학습자 챗봇'과 'e-HRD 담당자 챗봇'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학습자 챗봇 '새싹'은 일반인들이 개별 로그인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e-러닝, 현장실습교육, 회원가입 등에 대한 궁금증을 신속하게 대응하며, 이용자가 챗봇 '새싹'에서 e-러닝 과정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자주 찾고 이용하는 현장실습교육,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의 업무에 대해 맞춤형 정보들을 제공한다.

e-HRD 담당자 챗봇 '새싹'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 관리자 로그인을 통해 학습관리시스템(LMS), 현장실습교육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 담당자 업무를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 실시간 상담으로 해결 가능하다. 또한 '새싹'은 일반인들에게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자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최상호 센터장은 "챗봇 '새싹'의 활용으로 e-러닝 이용자에게 편리함과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 챗봇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내년도 상권르네상스 사업 지원대상 모집

전북중기청, 내달 31일까지... 선정되면 5년간 80억원 내외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공)이 함께 추진하는 '2021년 상권르네상스 사업' 지원대상을 지난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2018년 12월 발표된 '지역발전 전략·역신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로 2022년까지 전국 30곳의 상권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3차례에 걸쳐 군산 공설상권 등 전국에서 12곳이 선정된 가운데, 이번 모집을 통해 지원수요를 사전 발굴해 예산 범위(미확정)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 상권은 시장이나 상업가

가 하나 이상 포함되고, 최근 2년간 상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전통신장법 제2조 4호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다.

선정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함께 5년간 단계적으로 80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 상권 활성화를 지원되며, 투입된 예산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 중심의 SW사업과 인프라 중심의 HW사업에 활용된다.

상인회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 쇼핑과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조성해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매력 있는 상권으로 만들어 나가게 된다.

전북지역은 2019년도에 군산 구도심 상권이 선정돼 군산상권활성화재단

주관으로 금년도에 1차년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전북중기청은 2020년도 공모사업과 관련 공모 시기와 진행을 사전에 예측해 연초 시책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와 수요조사 과정을 진행했다.

전북중기청 안남우 청장은 "상권르네상스는 단기 사업이 아닌 5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생업 기반을 안정화해 지역상권의 부흥을 이끌어갈 것"이라며, "비록 선정 경쟁이 전국적으로 치열하겠지만 우리 지역의 상권이 많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본부와도 소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고 내용과 관련 보다 자세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www.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보훈가족 위문 나서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는 지난 22일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최정걸)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저소득 보훈가족 18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여름 이불을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위문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새만금개발공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및 그 유가족 등 보훈대상자 18명에게 여름 이불을 전달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보답할 차례"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서부보훈지청은 고령 참전유공자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업체 등과 더불어 보훈가족이 실감할 수 있는 든든한 보훈 복지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공공기관 상임감사 직무평가 'A등급'



한국전기안전공사(상임감사 함중걸)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상임감사 직무수행 실적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달성하며 자체감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공사는 2018년 9월 함중걸 상임감사 취임 이후 '깨끗한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완수로 국민안전에 기여한다'는 감사철학을 바탕으로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사회적 책무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감사의 강화, 사업소 준감사인 제도 확대, 적극행정정책 활성화 등을 통해 자체 감사의 효율과 성과를 높이며 공사의 청렴도 향상을 이끌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코로나19 위기 대응 전략, 전 세계에 알려

국민연금, 국제사회보장협회 홈페이지 통해
지사 폐쇄 시 지급 결정 업무 지역본부 이관
기금운용인력 서울 등 4개지역으로 분산 배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공단의 코로나19 선제적 위기 관리 체계 및 대외협력력을 통한 확산방지 사례를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게재된 내용은 "Covid19: The experience of NPS"라는 제목하여 공단의 코로나 위기 대응 사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노력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정적인 연금업무 수행을 위한 공단의 사례이다.

그간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부터 코로나19 비상안전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본부 및 지사의 주요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해왔다. 제도적으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로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했으며, 정상적인 연금 지급 업무 수행을 위해 지사 폐쇄 시 지급 결정 업무를 지역본부로 이관도 록 하고 차질 없는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인력을 서울·대전 등 4개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등 대방면의 비상상황 대응 계획을 수립·시

행했다.

또한, 대외적으로 경기국제2 생활치료센터(안산)와 김포 임시생활시설을 공단이 총괄 운영하고, 인천공항 등 3개 공항의 검역소와 생활치료시설 등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공단은 이러한 위기 극복 사례들을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320개 회원 기관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공단의 제도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 능력까지도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 K-방역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의 위기 대응 능력까지도 범사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3일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에서 제2차 Skill-up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코로나19 피해 대응 방안 논의

전주상의 전복인자위, 제2차 Skill-up 간담회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전북 지역의 인력 수급을 총괄하는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는 23일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에서 제2차 Skill-up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김영규 지청장을 비롯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익산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와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 (사)캠텍종합기술원 등 공동훈련센터 4개

기관장을 포함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상반기 운영 현황과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의 '코로나19' 피해 현황 공유와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훈련센터의 실질적인 역량강화(Skill-up)를 위해 훈련사업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북지역 4개 공동훈련센터를 순회하여 개최하는 Skill-UP간담회는 훈련 지원기관 및 훈련센터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왔으

며,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북지역 고용 대책이 시급한 만큼 지역·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선홍 위원장은 "상반기가 마무리 되는 현 시점까지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모두들 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오는 진행한 Skill-UP 간담회를 통해 상반기 인력양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고용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전 김제지사, 독거노인 대상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한국전력공사 김제지사(지사장 라영균)는 지난 15일부터 관내 독거노인가구에 화재예방을 위한 가스자동차단기를 설치하는 사람나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가스자동차단기는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65세 이상 독거노인 40여 가구에 가스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료로 설치했으며, 설치작업은 노인 일자리를 제공 차원에서 실버계층 고용을 통해 진행됐다.

리영균 한전 김제지사장은 "이번 사업은 독거노인과 같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대한노인회와 함께 관내 노인 등 취약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어린이 종합 교양지 구독 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도내 다문화가정 및 지역아동센터에 어린이 종합 교양지 '어린이동산' 연간 구독권 600매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농민신문사가 발행하는 '어린이동산'은 1984년 창간된 국내 유일의 어린이 종합교양지로 자연·역사·과학·동화 등의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담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지원하는 어린이동산은 도내 다문화가정과 지역아동센터에 매월 600부씩 연간 총 7,200부가 오는 7월부터 1년간 무상으로 정기 배부될 예정이다.

장기요 본부장은 "어린이동산 구독을 통해 학생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진 전라북도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